

4대 종교 성지 순례길 조성

10월 31일, 전통성당서 선포식 개최

전북지역 4대 종교의 성지를 도보로 여행할 수 있는 순례길이 만들어진다.

전라북도는 한국순례문화원과 함께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개 종교의 성지가 있는 전주~완주~익산을 잇는 180km 구간에 현대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아름다운 순례길'을 조성하고 10월 31일 전주 전통성당에서 완주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이병호 주교, 김원주 지사, 원불교 허광영 교구장, 개신교 김동진 목사와 각 종단별 2000여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 경기전 앞에서 선포식을 개최하고 순례 일정에 들어갔다.

첫날 전주 전통성당을 출발한 순례단은 완주 송광사에서 첫날밤을 묵으며 전주교 이병호 주교와 개신교 김동진 목사의 강론을 들은데 이어 1일에는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에서 도영스님이 500여 명의 순례단과 함께 법석을 마련했다.

도영 스님은 설법을 통해 원호스님의 해골 물에 대한 설화를 예로 들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종교 성지를 순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1일 완주 천호성당에서 설법하는 도영 스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여러 가지 현상을 행하며 자기를 반성하고 다짐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조성된 순례길은 1845년 한국인 첫 사제가 된 김대건 신부가 머문 나바위성지(익산시 망성면)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10여 순교자가 묻힌 천호성지(완주군 비봉면), 백제 불교문화의 정수인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 호남 최초로 1893년 설립된 서문교회(전주시 다가동), 신라 말기에 창건된 송광사(완주군 소양면) 등으로 이어지는 180km 450리에 걸쳐 조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 가람 이병기 선생 생가와 강암 송성웅기념관, 최명희 문화관, 한옥마을, 만경강 갈대밭, 제남리 독립, 고산전 숲속 오솔길도 만날 수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가을 산사, 책에 물들다

고창 선운사에서 진행된 밤샘독서 150여 가족 참가

고즈넉한 시월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창 선운사에서 간간히 책장 넘기는 소리와 땀방울이 맺힌 책이 정적을 가른다.

책임기운동전북본부(상임대표 박규선)가 지난해 금산사에서 이어 두 번째로 '산사, 책에 물들다'란 주제로 개최한 이 행사에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시간부족으로 평소 읽지 못한 책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150여 가족이 참여한 '밤샘독서'로 오후 8시부터 이른날 오전 6시까지 원하는 만큼 책과 함께 할 수 있다. 스님들이 강당으로 사용하면 '만세루'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



10월 31일 선운사에서 열린 '밤샘독서' 행사에서 독서를 통한 자기성찰을 당부하는 법안 스님.

여 개최식과 함께 미니초청특강이 진행됐으며 '이하이안'의 통기타 공연과 김명자씨의 '사랑한다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 낭송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법안 스님은 "최근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임시 등으로 자기성찰의 시

간이 많지 않다"며 "산사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경험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정신과 영혼을 순화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규선 대표는 "작년 행사를 진행해보니 산사의 분위기와 독서가 잘 맞아떨어짐을 느꼈다"며 "깊어가는 가을밤, 단풍이 물든 산사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책을 읽는 문화 속에 꼭 빠져들면 한다"고 말했다. 조카와 자신의 아이들과 함께 참석한 정지현(전주 우아동·40세)은 "작년에 참여한 친구로부터 이 행사를 알게 됐다"며 "아이들이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책 읽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5개 불교대학 화합의 큰 잔치

1일, 전주교육대서 7개 종목 체육대회 열려

전북지역의 5개 불교대학 화합의 큰 잔치가 개최됐다.

11월 1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불교대학 5개 불교대학 재학생 및 동문 등 1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배구, 터치볼, 단체줄넘기, 2인3각, 탁구, 단체 달리기, 화합의 줄다리기 등의 7개 종목과 열띤 응원으로 펼쳐졌다.

전북사암승가회(회장 원행·김제 금산사 주지) 주최로 올해 9회째를 맞는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는 '대 도약과 대화합으로 미래 불교를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지역 기관장과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에서 "아직도



1일 전주교육대 체육관에서 열린 전북지역 불교대학 큰 잔치.

불교의 미래를 비취 달라" 당부했다.

김백호 전북신도회장은 "전법과 포교가 없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며 "불교대학을 중심으로 지성불교, 복지불교를 위해 전북지역의 불교대학원들은 화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에서 전 종목에서 고른 성적을 기록한 이리불교대학이 종합우승을, 무주불교대학이 준우승, 전북불교대학이 응원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전통의식 강좌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산재를 배울수 있는 강좌가 개설된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상임의장 영조·송광사 주지)는 스님과 일반불자를 대상으로 12월부터 3개월 과정으로 불교전통의식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불교전통의식중 하나인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50호)를 일반인에서 널리 알리고 배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광주 금문문화관에서 주 2회 실습위주로 12월 1일 개강하여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해령스님(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도성스님(광주 북암사 주지), 정환담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박행삼 교수(한국전통문화연구소장) 등이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062) 224-09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어디든 불법 전하는 1인 10억 포교사

깊은 가을 10월의 일요일, 익산 여산면 육군 부사관학교 넓은 법당이 저명저명 울리도록 설법하는 노인사를 한 분 만날 수 있었다.

올해로 미수(88세)를 맞는 김동확 포교사(사진)는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각을 높이기도 했다. 인근의 사찰에서 직접 특강을 하기도 하고 적십자사 평생대학교수직과 각 노인대학, 자원봉사대학, 사회단체인 회망연대에 강의를 나가면서 교양강좌를 통해 <법구경> 등 종교책을 드러 내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자비사



곳곳에서 식지 않는 열정으로 포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40여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절에서 천도재를 지내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는 김동확 포교사는 가까마리 중학생시절 학도병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김 포교사는 6·25 참전유공자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 서인지 군포교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1990년대 초부터 육군 부사관학교 호국중국사과 임실 탄약창 장영사, 김계해안대, 논산 항공학교, 군산공군 38전대등 지역 내 군법당을 꾸준히 찾아 생활법문과 교리강좌를 개최해왔다.

포 군산 교도소법당도 틀나는 대로 찾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을 무기로 재소자들에게 법공양물과 간식을 마련해 불법을 전해왔다. 이리불교대학에서도 13년간 학생처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의는 물론 틈틈이 교리퀴즈 시간을 마련해 학인들이 퀴즈의 정답을 맞출 때마다 선물을 제공해 학생들의 불교에 대한 친근

상을 홍보해 왔다. 미수의 나이가 무색하게 익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양로원 등 인근의 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과 종합병원에서의 간병 봉사까지 병행하고 있다. 노인대학 강의때면 인생황혼기의 참다운 삶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며 사생제와 팔경도에 대한 이해로 편안한 여생을 보람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주머니에 간편하게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천수경> 5000권을 손수 자비로 제작해 서울 옥수동 불전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단체나 군법당 혹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주고 유행자, 합장주, 기도문 등을 만들어 곳곳에 배포해왔다. "머무는 곳마다 정토이며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아닌 것 없다"는 김동확 포교사는 어느 특정분야만이 아닌 이르는 곳마다 불법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1인 10억의 진정한 부루나 존자인에 틀림없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노후생활·우호다지는 기회"

고창군노인복지회관, 복운실버아카데미개강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무궁)은 11월 4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제1회 복운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개강식 및 입학식을 진행했다. 입학식에 이어 무궁스님의 '7080 노년의 건강한 삶'에 대한 유쾌한 강의가 이어졌다.

노인대학은 영화·연극 관람, 현장학습, 취미교육, 교양강좌, 타 기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궁스님은 "학습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 보람 있는 노후생활과 어르신들 상호간 우호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송리 어르신은 "꼭 넓은 여가활동 기회를 얻게 되어 앞으로 노년이 즐거울 것 같다"며 흡족해 했다. 복운실버아카데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와 노인층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 증가, 여가활동 지원·육성을 통한 건강한 노인문화 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인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개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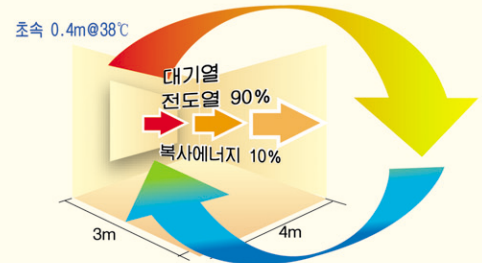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 교육과정으로 주 1회 시범 운영되며, 교육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스위스 기술로 만든-초절전형 **12 m²** (3.5평) **실내 전체를 22°C까지...** **전기로 1시간 35원**
 (주택의 경우 누진세 적용되므로 별도)
505W/낮은 전력으로 난방효과 더욱 강력해진 동절기 근무시간 이후 대체난방 해결사 **공기중 세균살균 효과**
 공기중 세균이 벽과 판넬사이를 통과할 때 세균이 살균 됩니다.

- 사무실, 오피스텔, 병원, 연구실, 도서실, 휴게실, 기도실, 자야실
친환경적 자연 원리 이용-난방비 50% 이상 절감
- 시간외 근무, 주말 근무시 난방이 안되는 업무용 빌딩의 대체 난방
화재위험 없고, 별도 공간차지 하지 않는 초절전형
- 외풍, 건물외벽방, 발코니 난방해결
전체 보일러 온도 높이지 않고, 추운 사각지역 해결

- 벽에 부착, 공간을 차지 하지 않음.
-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냄새없고, 소음없음.
- 산소소모 하지않아 24시간 가동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음
- 알레르기 유발할 먼지를 일으키지 않음.
- 건조하지 않아 눈이나 입술이 마르지 않음.
- 유지관리비 없음, 디자인이 우아함.



- 자연의 원리에 따른 친환경적 -

밀 바닥에 있는 찬 공기가 히터쪽으로 모여서 따뜻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 올라가고, 자연 순환하게 하므로 실내 온도가 골고루 따뜻하여 집니다.

“강력한 더운 공기가 나오는 모습”을 ‘주안홈페이지’에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juanscorp.net



“강력한 더운 공기가 나오는 모습”

ECONO-HEAT (주)주안상사
 THE WARRIORS OF A HOME
 JUANS CORPORATION
 주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69-1번지
070-7124-9301, 9303